

올해 오월 기념행사 ‘미래세대’ 중심으로 펼쳐진다

●제44주년 5·18한달앞

행사위, 웹진·공론장·타지역 교류 등 청소년·청년사업 34개 선정 시민 공모는 33개...내달 17일 ‘민주평화대행진’·‘시민난장’ 예정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17일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에 따르면 올해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국가를 넘어 모두가 자랑스러운 오월을 만드는 5·18 기념행사가 되도록 ▲5·18 진상규명 기여 및 오월정신의 확산 ▲오월의 신뢰회복 ▲청년과 청소년 주제 등을 담은 33개의 시민공모 사업을 선정했다.

공모에는 제44주년 기조와 방향에 기반한 여러 형식의 사업들이 접수됐다.

행사위는 올해 청소년과 청년 부분을 따로 모집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미래세대로 지속 가능한 기념행사를 조성할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이에 총 33개의 시민공모 사업 외 33개의 청소년 사업, 1개의 청년 사업을 별도로 선정 중이다. 각 사업은 4-6월 중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처음 추진되는 청년 사업인 ‘모두를 위한 오월공론장만들기 프로젝트’는 오는 5-8월 약 4개월간 최대 10회에 걸쳐 ▲5·18 주제로 활동하는 청년의 기획이고 ▲5·18 주제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청년의 자유훈고 등이 담긴 잡지를 웹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7-8월 중 하루 3시간가량 ‘미세좌절의 시대: 오월정신에 다시 한번 다가가기’, ‘나에게 오월정신이란?’ 등의 주제로 토론하고 지역 내 다양한 청년활동가, 기획자, 예술가 등을 재조명해 그들의 언어로 해석한 오월정신을 공유하는 장을 열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이 타 지역 청소년들과 만나 5·18을 공부하는 ‘금남로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이



5·18 ‘윤상원 열사 기념관’ 개관 기념 볼에 맞서 민주주의를 밝힌 시대의 등불,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정신을 공동체로 꽃피게 할 ‘윤상원 기념관’ 개관식이 17일 광주 광산구 임곡동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열사의 생기가 있는 천동마을에 2층 건물로 들어선 민주커뮤니티센터는 기획전시와 상설전시 공간으로 꾸며졌다. 사진은 개관식 참석자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김예리 기자

문산마을에서 국립5·18민주묘지까지 약 8km를 걷는 ‘오월 인권길걷기’ 등 자선들이 직접 계획하고 구상한 다채로운

사업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5월17일 금남로 일대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들이 참여형 부스를 설치

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난장’을 진행하고 같은 날 ‘민주평화대행진’은 수창초등학교에서 행진을 시작해 전야제

무대 앞까지 도착한다. 이후 전야제의 막이 오른다.

이와 함께 5월 한 달간 ▲우리가 이어갈 광주의 봄, 5월 재현 행진 ▲5·18민주항쟁 정신계승 대학생문화제 ‘광주의 봄’ ▲오월여성제 ▲오월 주먹밥 나눔 등 시민공모사업과 5·18민주화운동 역사 설명을 듣고 당시 대동 정신을 지도로 형상화 하는 ▲사(4)랑하는 사(4)람들을 오월하다! ▲청소년5·18뮤직토크 콘서트 등 청소년 사업 등 다양한 5·18 기념행사가 이뤄진다.

김순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시끄러웠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모든 계층·세대·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내며 서로 시대적 메시지를 공감하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또한 앞으로 5·18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참여를 높이고 이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위는 지난달 19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식을 가졌다. /주성학 기자

“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전 광주시의원 ‘뇌물’ 부인

내달 17일 금품 교부자 증인 출석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과정에서 6천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40)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앞선 재판에서 검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로 “광주시교육청의 ‘매

입형 유치원’ 사업의 외부위원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모 유치원 관계자 A씨와 부당 거래를 공모, 관련 문건을 건네줬다”며 “선정 이후 진행 상황 등을 A씨에게 수시로 전달한 대가로 총 6천200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최초로 받았던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타인의 계좌로 받은 뒤 신용·체크카드를 교부 받았다”며 “A씨의 유치원 외 다른 곳도 매입형으로 선정되도록 돕고 3천만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전 의원 측은 “돈을 타인의

계좌 등으로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뇌물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의원에 금품을 준 A씨를 증인으로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7일 재개된다.

한편 별도 기소된 최 전 의원을 제외하고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서 비위를 저지른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등 5명 모두는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 중 A씨 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안재영 기자

‘학생 대상 성범죄’ 고등학교 교사 긴급 체포

전남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전남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관리 대상인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일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

사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전남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동성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전날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등 다방면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수사 진행 상황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안재영 기자

‘수사 편의·합의 종용’ 금품수수 전직 경찰 법정구속

법원, 징역 1년4개월 등 선고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양측의 합의를 중재하며 뇌물을 받은 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단독 나상아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공무원비밀누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0)씨에게 징역 1년4개월·벌금1천200만원을 선

고하고 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나주경찰서 근무 중 사건 관계인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거나 피의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중재해주는 대가로 총 6명으로부터 88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례로 A씨는 가정폭력 피의자의 편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며 합의를 종용하거나, 성범죄 피의

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도 했다.

전남경찰청의 조사로 앞서 파면 징계를 받은 A씨는 수수한 금품에 대해 “합의금을 전달받은 것”이거나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

교사 노트북 해킹 시험지 빼낸 교고생 ‘양형 부당’

1심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 선고

더 높은 성적을 위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 빼낸 시험지와 답안지로 시험을 치르다 부정행위가 들통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형을 선고받은 A(19)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지난 2022년 3-7월 공범 친구와 함께 학교 교무실에 10여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무실에 침입해 노트북에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한 뒤 저장하는 악성코드를 심어두고, 며칠 뒤 USB

에 다시 담아오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성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크게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군에게 징역형을, 공범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적절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A군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네, 힘이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 👤 **대 상**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 **양육공백기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서비스 유형(기준중위소득)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15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대표번호 **1577-2514** 가까운 센터로 자동연결

홈페이지 <https://gj-idolbom.or.kr>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